



이태원 참사와 책임자 처벌, 청년들의 좌절과 희망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난해 10월 29일 밤 10시 15분,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하고자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발생 76일, 출범 74일이 지난 1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헬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유승재(57) 부구청장,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불법 건축물의 건축법·도로법 위반으로 이모(76) 해밀턴호텔 대표이사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잘못이 중첩되어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파악했다.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처리했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조사했지만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야당 주장을 두고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미루어지고 있다. 국회 특조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만 했다고 규정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희생자 유족들도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안부장관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책임 회피적이고 '시체 장사' 등 모욕적인 말에 2차 가해를 받았고, 상처 받고 분노한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나도 우리 가족이 암사당할뻔한 큰 위기를 겪은 일이 있다. 1999년 12월

31일 저녁에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전야제(새천년 준비위원장 이여령 초대 문화부장관 주최)에 가족이 나갔다. 수십만 명의 엄청난 인파가 어두운 밤거리에 운집해서 밀리고 밀려 다니고 있었다. 종각역 부근에서 어느 순간 뒤에서 밀어대는 강한 압박에 나는 9살짜리 딸을 안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몇 사람이 내 등을 밟고 지나갔다. 어두운 아스팔트 차가운 바닥에서 사람들을 밀쳐내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다.

문제는 바로 옆에서 가던 아내가 사정없이 떠밀리는 바람에 잡고 있던 아들(11살)의 손을 놓쳐버리고 함께 앞으로 쓰러졌다. 몇 사람이 밟고 지나갔는지, 아들은 모기소리 같은 작은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신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갈비뼈나 창자는 손상되기 쉽다. 어떻게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빠져나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극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나고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린다.

사람들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대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어둠 속에서 공중에 뜬 상태 비슷하게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앞으로 떠밀려갈 수 밖에 없다. 특수본 발표에서는 1평방미터 안에 12명이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떠밀려가는 상황을 '균중의 유체화(幽體化) 현상'이라고 했다. 현장 희생자 및 부상자들은 개인당 평균 약 224~560kg 정도의 힘을 받아 질식 등으로 사상 당했다고 하니, 그 상황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에서 나는 우리 청년들의 절망과 좌절을 본다. 기성세대는 이름부터 낯설고 축제의 유래와 내용도 잘 모르는 외국 축제인 헬러윈 축제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도 열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은 글로벌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딱딱프리고 있는 취업과 결혼, 주택 문제 등 현실은 절망과 좌절이 북받쳐서 깔려있다. 상처받고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은 차가운 벽으로 다가가기 쉽다. 지금도 힘든 현실에서 숨통을 트기 위한 전망은 밝지 않다.

청춘은 우리의 아름다운 희망이고, 우리를 살려줄 든든한 미래다. 기성세대들이 좀더 정신차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정책과 행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칼럼

공사장 화재 ZERO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

기고

박상래 담양소방서장



매년 이맘때쯤부터 시작된다. 건축공사장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시기 말이다. 작년 1월 소방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가 그러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는 모두 5,847건으로 459명(사망 27·부상 432)의 인명피해와 1,49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사장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인함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공사현장은 건축자재를 소방설비가 미흡한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로 공사관계자들의 화재안전의식 제고이다. 이는 우리가 매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로 현장 수준에 알맞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용접작업 시 작업자로부터 5미터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해 유사시 초기진화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로 용접작업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용접작업 후 30분 이상 주변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 12. 1부터 공사장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방서의 선제적 화재예방대책과 더불어 공사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어우러져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렇다면 올해는 물론 내년 이맘때쯤에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동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내 고향 안전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박남규 강진119안전센터장



사망자 비율은 46%가 주택에서 발생할 만큼 주택화재의 경우 다른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방문을 망설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이번 설날만큼은 고향방문을 예정하고 있고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을 위해 설 명절 선물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강진 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설 명절에 대비해 다양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이 약 18%인 반면 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일반 분말용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인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화재 초기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 탈출 및 신속한 초기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이번 설날만큼은 다른 선물보다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기고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